

공익수당 올리려 벼 지원 ‘반토막’...전남 농심 뿔났다

전남도의회, 벼경영안전대책비 삭감해 농어민공익수당 인상 요구
농민단체 “사전협의·동의 절차 없는 일방 행정 극치”...트랙터 시위도

전남도가 도의회의 요구로 농어민공익수당을 인상하면서 벼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무안군 남악읍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농민연합회와 전남농민총연합회, 전농연맹 등 300여명은 집회를 열고 “전남도 벼경영안전대책비 50% 삭감은 일방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최근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절반 삭감하면서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일괄 사전협의와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트랙터까지 동원해 전남도청 앞에서 3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가며 벼 경영안전대책비 복구를 주장했다.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1ha 당 65만원, 최대 130만원(2ha)까지 지원된다. 전남도의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 경남 등 타도 시보다 4배 이상 많으며 지금은 중단한 곳도 많다.

하지만, 올해 연말 혹은 내년초에 지급될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228억원을 편성해 올렸지만, 도의회는 절반을 삭감한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줄어든 건 농어민 공익수당 때문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당 60만원씩 지원된다.

전남도의회는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10만원 인상된 70만원으로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삭감된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최근 6년간 동결된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 도의회가 원하는 공익수당 20만원 인상에 178억원이 필요했지만, 전남도는 열악한 예산 상황을 감안,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남도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전남도의회가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벼 경영안전대책비 228억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잉여금(114억원)을 공익수당 10만원 인상(87억원)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도의회 제안을 받아들였고, 절반 줄은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 예산결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의회는 당시 협의 과정에서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올 연말이 아닌 내년도에 지급되는 시·군도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을 선불리 언급하기 어려운 데다 전남도의회와 각을 세울 수 없어 제안을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벼 경영안전대책비 삭감 소식에 전남농민들이 강추위 속에서 트랙터까지 동원해 집회를 벌이게 된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을 지는 가늠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도의회의 무리한 요구로 벼 재배농가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태균 “회기 내 광주·전남 광역연합 처리할 것”

전남도의장 기자간담회서 밝히

전남도의회가 오는 16일 종료하는 정례회기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이하 광역연합) 규약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광역연합 규약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연합 출범은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내실없는 속도 내기’, ‘광주와 동(同)수의 광역의회 의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연초 출범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태균 의장은 “광역연합의 필요성과 연합이 광



주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까지도 있다”면서 “특히 규약안과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수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해당 소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등과 만나 광역연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회기 내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양동시장 접근 편해질까”

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역에서 열린 외부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착공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수훈 시의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중앙공원,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속도

무등산·지질공원 이어 ‘생태도시 그랜드슬램’ 목표...내년 9월 신청 예정

광주시에 서구 풍암동 일대 중앙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실행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새 단장 중인 중앙공원을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이 있다. 지난 8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중 부지 면적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중앙공원의 전체 면적은 약 279만 2674㎡(공원면적 279만6446㎡)로, 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

시는 중앙공원의 미래 비전을 크게 네 가지로 설정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녹색 허브’,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시민 중심 공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의 장’, 그리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공원’이 그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2027년 12월로 예정된 민간공원 조성 공사 준공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번 달 서구 서빛마루에서 한국조경학회와 전

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포럼’을 열어 범업 조성에 나선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예산 8000만원을 투입해 ‘기본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7월께 가칭 ‘국가도시공원관리팀’도 신설한다.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광주시는 2026년 9월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새롭게 태어날 중앙공원에는 기존 풍암호수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외에도 다채로운 신규 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에 이어 중앙공원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격상해 ‘생태도시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것”이라며 “전담 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 등 남은 과제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최종 선정

2030년까지 해양레저 거점 조성...1조980억원 투입

여수시가 1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다시 한번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을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추가 공모 결과, 여수시를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 시흥, 인천 송도, 부산 사하 등 내로라하는 7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

으나, 풍부한 해양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여수시가 승기를 잡았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레저와 휴양, 예술이 어우러진 명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국비 1000억원과 도비 300억원을 포함해 민간 투자금까지 합쳐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980억원을 투입, 가막만 일대를 세계적인 해양레저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사업의 핵심은 ‘가막만 해양관광 벨트’ 구축이다. 시는 박람회장과 경도, 무술목을 잇는 5개 핵

심 권역을 설정해 집중 개발에 나선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돌산 우두리에는 지역 미식 문화를 알릴 ‘오션푸드스트리트 터미널’이 들어선다.

경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복합크루즈환승센터’가, 경도와 무술목 사이 해역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치유 공간인 ‘플로팅 웰니스파크’가 조성된다. 무술목 해수욕장 일대는 ‘아쿠아마린파크’로 변모해 해양 레포츠의 성지로 육성된다.

여기에 현재 민간 유지가 진행 중인 무술목 관광단지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 초 국비 등 20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음의 맛

쌍화차

정음 쌍화차로 건강 챙기세요!

찬바람 불면